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6일 목요일 음 6월 17일 (9월)

기상정보

호리고 가끔 비



제주도는 호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27℃, 낮 최고 기온은 28-32℃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sunset and moonrise/set times for Jeju.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위험. Rows show UV index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info.

월드뉴스

마스크 안 썼다고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지구촌 곳곳 마스크 분쟁

“씨러” “쓰기 싫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 미국 월마트의 쇼핑객.

최근 며칠 사이만 해도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거나,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관의 머리를 내려치는 일들이 발생했다.

는 일이 벌어졌다.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이 여성은 두 여성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을 문제 삼자 그중 26세 경찰의 머리를 여러차례 후려쳐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지게 했고 다른 경찰을 밀쳐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맨해튼비치에서 한 여성이 길을 가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남성의 얼굴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끼얹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일 빨래방을 찾은 한 손님이 앞서 와 있던 다른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했다 야 구방방이로 두들겨 맞았다. 연합뉴스

호주 멜버른 인근에서는 지난 3일 밤 38세의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여성 경찰들의 지적에 격분해 경찰의 머리를 후려쳐 쓰러뜨리

구방방이로 두들겨 맞았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Jeju 대표 신문. Contact info: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서로 154. Includes website and phone numbers.

목요일론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

올해는 제주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4·3사건이 발생한지 72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4·3특별법 제정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72년 전 그날의 제주는 냉전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수많은 양민들이 빨간 동백꽃으로 산화돼 갔다. 이념의 소용돌이는 가족의 생명을 가져갔고, 삶의 흔적이 지워져 한 평생 가슴속에 한이 돼 지금도 그 날의 지워진 흔적을 찾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당적 협력 필요

급기어났다.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은 아픈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오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염원을 담은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나 그 과정들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4·3유족, 연구소 등 4·3관련단체, 언론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똘똘 뭉쳐 투쟁한 역사적인 결과물이었다. 4·3특별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및 재단 설립,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가능했다.

이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에 희생된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배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달 27일 제주도민 및 유족의 뜻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이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5일 총선에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보수정당 의원들은 서명자 명단에 보이지 않았다. 제주 4·3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의 책무인데 말이다. 후시 지난 총선 당시 유족과 도민을 위한 약속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래통합당 소속 제주도지사로서 진심을 다해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수뇌부 및 의원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힘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금까지 재정 운운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도 72년 전 그 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질곡의 역사를 살고계신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배·보상 등을 통한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아픔을 해결하는 일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을 넘어선 초당적 협력의 필요하다.

열린마당

전기차 메카 제주를 꿈꾸며



김진호 JDC 산업육성팀 차장

현대자동차는 올해 초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7월 초 '수소모빌리티+쇼'를 통해 UAM(도심항공모빌리티)-PBV(목적기반모빌리티)-HUB(모빌리티 환승거점)가 연결된 미래 혁신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탑재해 식사를 하거나 진료를 받으며 이동하고,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되는 플랫폼에서 환승하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다는 시나리오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있으며 관련 누가, 어느 지역이 선도할 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주는 전기차 비율이 높고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전기차 운

행의 최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그럼에도 도내에서 전기차 분야 연구소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전기차 정비센터도 찾기 힘들다. 전기차 업체들에게 제주는 판매의 대상지로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제주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과 기업들이 유입돼야 한다. 국책 과제 등의 프로젝트 유치, 첨단 연구장비 도입, 규제 완화 등 그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JDC는 KAIST와 협력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친환경·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첨단 장비가 구축된 자율·전기차 전문 연구시설 'EV-LAB'이 올해 문을 열게 되면, 관련 분야 고급 인력과 유망한 기업들이 제주에서 협업하며 다양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제주 안에서 답을 찾아낸다면 언젠가 'Designed in Jeju'가 각인된 전기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장애경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주무관

감귤은 제주의 상징이자 전통적인 농가 주 소득작물이다. 묘목 거래가 활발한 만큼 분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에 사는 A씨는 3년전 묘목업자에게 유라조생 1000그루를 구입해 밭에 심었다. 수확시기가 됐을 때 묘목밭의 절반만이 조유라조생이고 나머지는 만감류인 황금향이 달려 A씨는 묘목업자에게 항의했으나 묘목업자는 본인이 판 묘목이 아니라고 한다. A씨는 매매계약서 없이 현금 거래를 했고 품질표시내용도 받지 못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나 그 업자에게 샀다는 증빙조차 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보듯 감귤 묘목 관련

된 분쟁 대부분은 품종의 섞임 혹은 구입한 것과 다른 품종인 경우이다. 농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일반 농가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립종자원에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가 있다. 이 제도는 양측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 성립이 되기에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다.

농가는 구입한 묘목이 규격도 품질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품종 섞임 등 문제의 보상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묘목산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종자업 등록과 해당 품종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노란 귤이 영그는 제주의 신록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 신록이 마르고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이 멎는 일이 없도록 제주에 참여하는 과수는 묘목 전부가 청정하게 생산하고 정당하게 거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Ferkacalshim + Cocorybiro.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lists benefits like '100% 수용성 비료' and '120년의 역사'.

Advertisement for FORTRA Jeju branch. Title: '농업인이란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Lists products like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and '키워농가'.